

종교문제? 아소카왕에게 해답 찾자

종교의 시대 제대로 사는 법... 백찬홍 '종교의 안부를 묻는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의 시대'다.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 열기 바람은 실로 엄청났으며, 맑고 향기로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종교가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종교의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알고 보면 이슬람과 유대인을 확실한 무대의 배경이었다는 것. 한국에서는 '예수'로 시작되는 교회와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교회가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것. '민중화의 메카'였던 명동 성당 등 전통교회가 지금은 강남과 분당의 중산층을 위한 종교가 된 사실 등.

책은 신이 있다, 없다 등의 갑론을박, 창조론, 진화론의 논쟁이나 교리를 둘러싼 사변적 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 종교의 속살을 31가지의 에피소드로 낱알이 공개한다. 한국 종교를 넘어, 세계 종교의 결과 속을 두루 살피게 해 진정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종교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

독실한 개신교인인 저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교, 불교 등 너나할 것 없이 종교관에 천라지망(天羅地網)같은 독설과 비판을 과감하게 던진다.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주요 종교와 종단의 비판에 거침이 없다.

저자는 개신교 외 불교, 가톨릭인들과 똑같은 교류를 통해 범종교인으로 활동을 해왔다. 인도, 중동, 티베트 등을 여행하면서 힌두교, 이슬람교, 티베트불교와도 접했다. 그는 주로 종교권력의 문제점과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글들을 많이 써왔다. 특히 개신교의 패권적이고 물질적 경향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아소카왕의 다원주의적 행동이 현재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불교는 종교전쟁을 겪지 않은 유일한 종교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위대한 사상가-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

수>라는 저서에서 "불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교도 탄압, 종교 재판,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종교"라고 말했다.

불교가 북방불교, 남방불교, 티베트불교 등으로 나눠져 있고, 교리 상에도 차이를 나타내지만 기독교와 달리 종교 전쟁이 없는 것은 다른 종교에 비해 비폭력 사상과 다원주의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원주의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다. 아소카왕은 현재 인도 동부 오리스 주에 위치한 칼링가국과의 전투에서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아소카왕은 정통 불교를 세우기 위해 무력대신, '다르마'를 통한 '정복'으로 포교사를 통해 불교를 전파해 갔다. 물론 이단들을 교단에서 축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물리적 탄압을 하진 않았다. 브라만교·자이나교·아지비카 등 다른 종교들을 동시에 보호하며 불교를 전파하는데 힘썼다.

특히 아소카왕은 "누구나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경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봉사해야 한다(생략)"라는 칙령을 새긴 돌기둥을 세워, 영토 전역에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이렇게 불교는 다원주의를 존중하며 현재 종교 또는 문화와 대결하기보다 융화하면서 성장해 왔다. 중국에서는 도교와



교류해 선불교를 만들어 내고, 한국에서는 토속 신앙을 받아들여 절 안의 산신각, 칠성각을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티베트의 전통 신앙인 본교와의 통합을 통해 라마교를, 일본에서는 정토종의 일파인 일련정종을 탄생시켰다.

이 밖에도 저자는 한국 개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교 정복인가? 단무지를 만든 일본의 선사가 검갑가 미야모도 무사시의 스승이었는데!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예수를 만났을까? 조니 워커 교황, 진정 교황과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천벌을 받은 이유가 동성애에 대한 신의 분노인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기독교가 반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들로 현 종교 현상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무게감을 덜기 위해 31가지의 이야기들을 가끔 영화, 스포츠, 미술 등의 이야기들과 섞어내기도 했다. 더불어 책 사이 종교간의 재미있고 다양한 면모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종교의 안부를 묻는다 | 백찬홍 지음 | 펴사리 | 1만3800원

이은정 기자 soe84@buddhapia.com

그대가 부처기에 지금 이대로가 무한자유

납승의 한 눈썹이 삼계를 꿰뚫어서 구름중 한 소리에 들쭉이 가득 피어나고 이를 쫓아 맑은 향기 온 누리에 가득해 온 세상 온 만민이 온갖 낙 길이누리구나. (납승가 중 예서)

예로부터 중국의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도의 경지를 노래한 것을 '중도가'라 해 참나(眞我), 본래 나를 찾는 이들의 지침서로 불려왔다. 중국에는 신심명 중 도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영흥 선사와 '납승가(納僧歌: 누더기 중의 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납승가(納僧歌)>는 2002년 초판이 발행돼 1만 불자들이 출가자, 선을 공부하는 재가 참선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을 향한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2010년 재판이 출간됐다. 과거로부터 많은 조사 스님들이 조사어록을 통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주석에 주석을 달고 해석에 해석을 거듭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는 희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꿰뚫는 골수는 하나. 바로 '본나'를 깨우침이다.

영흥 스님은 '납승가'에서 깨달음 이후 스님 내면으로 부터의 본나, 참나를 나두고 쓰고 누리는 무애자재한 자유의 세계를 우리 정서와 우리 말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꿰뚫고 천칠백 공인을 하나로 녹이는 진정한 '선(禪)의 골수'를 친근한 우리의 정서로 표현해 우리의 눈앞에 활활발하게 살아있는 듯이 그대로 펼쳐 놓아 보여주려고 느끼게 한다.

영흥 스님은 1947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21세에 망월사에서 우연히 친견한 춘성 스님의 벽력같은 고향소리에 자성을 깨닫게 됐다. 1974년 백양사에서 서용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한 영흥 스님은 현재 인연당은 스님들과 재가 참선수행자들을 지도하며,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납승가 | 영흥 스님 지음 | 꽃술 | 1만1000원 | 이나너 기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일선 스님의 '행복한 간화선'



올해는 간화선을 제창한 보조 국사가 열반한지 8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물론이고 선(禪)을 공부하는 사람조차 간화선은 매우 어렵게만 느껴진다.

20여 년 동안 대중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간화선을 해온 일선 스님은 자신이 직접 겪은 수행의 방법, 시행착오 등의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소리>에 이어 두 번째 수행이야기인 <행복한 간화선>을 통해 그간 못다한 이야기와 한층 깊어진 수행력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간화선으로 쉽게 풀어놓았다.

전남 거금도 금천선원에서 인거종인 스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왕 수행을 한다면 간화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간화선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길이라 믿는 스님은,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다.

행복한 간화선 | 일선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 1만 3000원

이은정 기자

밤마다 옛날 얘기 해주던 엄마처럼...

보경 스님 '이야기 숲을 거닐다'

'이야기 하다'는 '모방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삶의 경험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윤곽을 사건으로 그려내 타인에게 제시하면서 '이야기 하다'가 탄생했다. 결국 이야기는 개인적인 체험담에서 모두의 것이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닮아가기도 하고, 때론 인간사회를 황폐하게도 만들었다.

인간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정확하게는 이야기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하는 순간 이미 자신은 객관화 돼버리고, 이야기 속에 비쳐지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종교적으로 보면 사유고, 보편적으로는 성찰이 된다.

특히 종교는 '잘 들음'을 강조한다. 노장사상에서는 '비움'을 이야기한다. 저자인 보경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 보경 스님이 어린 시절, 노모는 항상 옛날이야기를 매일 밤 들려주셨다. 하지만 노모는 항상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라는 말을 했다. 어린 마음에 흥이 꺾기, 이유도 묻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곧 이야기를 좋아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가 결국,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며, 진정 마음이 가난한 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때마에 고집을 부리며 막다른 골목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은 몸을 돌릴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삶의 여백이자 빛을 모을 빈 공간을 가졌다.

보경 스님의 글은 그런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이야기다. 회·노·애·락의 네 가지 주제로, 각 문화의 우화·신화·민담·종교 등의 이야기를 곁들이며 또 다른 이야기들 탄생시킨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과 동물, 동물과 자연, 동물과 동물과의 대화가 오가며 그 속에서 삶의 교훈을 펼친다. 한 마디로 '삶의 적절한 자제' '지나치면 탈이 난다'는 암시를 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오히려 잔소리로 알아듣기 일쑤다.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 주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기도 같다.

이야기 숲을 거닐다 | 보경 스님 지음 | 민족사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해인	클리어마인드
2	기도	법륜	정토
3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4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5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6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있네	완철	들
7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얼아	민족사
8	스타르트의 꿈, 세상을 바꾸다	백승권	불광출판사
9	미중들의 힘	허달	여시미온
10	대의단의 타파, 무방범의 방법	성영	탐구사

*불서종편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하락신회대사현종기
선문염송 16권

신간! **능통선종대사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이 중국전하에 우뚝 하도록 한 장본인, 하락신회대사의 현종기, 세간에 지해종도로 알려져 있는 편지를 불식시키는 뛰어난 깨달음의 경지가 여기에 담겨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하락신회대사의 실경지를 드러내고 바로보임으로써 빛났다.

신간! **선문염송 1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6권 출간! 임제, 목주 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이 실려있다. 뿐만 아니라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꼭두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주)현대에너지 2010년 최신행

농협에너지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에너지경영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11종 ~ 20명까지

본사공직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기마음

민속죽염 22년전통
프랑스의 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후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공강경 회상승해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구입문의>
유명서점·불교서점
총판 :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저자 고목 | 신국판 478쪽 | W17,000
도서출판밀양 T.055-355-9122